

# 귀중한 선물

안동동부국민학교 교사  
김 훈 일

몇년 전 사학교에 근무할 때이었다.  
우리 학급에는 한사람의 몸이 매우 약한 어린이가 있었다.

나이가 11세인데 7세 어린이처럼 몸이 약할 뿐 아니라 얼굴색도 노랗고 체육시간에는 달리기도 서툴렀다.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에 오래 서 있으면 갑자기 잘 넘어지기도 하였다.

영이 때문에 늘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죄송했지만 학부모를 학교로 오시게 하여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받도록 하였다.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영이의 엄마가 오셔서 진찰 결과 몸이 몹시 약하다고 하시면서 병은 없다고 하였다. 큰 걱정을 하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사 먹도록 말씀 드렸다. 처음에는 '효과를' 의심하면서 주저 하셨다. 한달만 먹여보고 효과가 없으면 먹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 말의 뜻을 이해하셨는지 한달간 우유를 먹이기로 결심하고 한달치 우유값도 선불하고 가셨다. 한달간 우유를 먹는 영이는 노랗던 얼굴이 차차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듯 하였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가정 통신문으로 영이의 건강을 가정에서도 잘 돌봐달라고 하였다.

그 뒤 얼마를 지난 어느날 학교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어머니 교실 월례회에 오셔서 영이의 어머니는 우선 교실을 방문하시고 고맙다고 몇번이나 인사를 하셨다. 사실은 영이의 동생이 2학년 남자여서 그 반의 대의원이었고 우리 반 어머니 교실 대의원은 아니었지만 개의치 않으셨다. 그 때처럼 우유의 고마움을 느끼기도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 요사이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우리 반 어린이들은 우유를 즐겨 먹고 있으며 동학년의 다른 반보다 우유를 많이 먹고 있다. 먹어 건강하고 튼튼히 자라 내일의 우리나라 훌륭한 일꾼이 되는데 개인적 사정만 허락된다면 우리를 어린이들에게 먹인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영이가 우유의 혜택으로 건강도 되찾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보고 작년부터 나도 우유를 계속 먹고 있다.

시중보다 값이 싸며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 또 밤 늦도록 독서를 해도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입시를 위해 우유를 먹으면서 공부할 때처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가볍다. 앞으로도 계속 우유를 먹으려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대로 우유를 먹으면 몸에 이익이 되고 건강을 지킬수 있다고 선전하겠다.